



광주교통공사, 신세계안과와 무료 안과검사

광주교통공사와 신세계안과는 3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의료 취약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검사 진료를 펼쳤다.(사진)

이날 봉사에서는 신세계안과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료를 펼쳤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경로 우대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백내장 및 안질환 검사 등 다양한 진찰 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무료 안과진료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 △저소득층 백내장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행복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무료 진료로 지역민들에 따뜻한 빛을 밝혀준 신세계안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나누는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산구 '우산 동락(同樂) 어울림 한마당'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9일 수량어린이공원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우산동 마을축제 '다시 가을, 우산 동락(同樂)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사진)

우산동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 주민의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기 자랑, 올해 두 번째 'Fun(핀)! Fun(핀)! 우산 에코마켓(생태장터)'이 진행됐다.

△나만의 엘이디(LED) 분위기 등(무드등) 만들기 △친환경 꽃비누 만들기 △양말목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험 행사도 운영됐다.

또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을 풍경 그리기'를 주제로 제7회 리틀피카소 사생대회를 열었다. 김상철 기자



광주시선관위, '선거, 음악에 스며들다' 캠페인

광주시선관위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구 상무지구 평화공원에서 성숙한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선거, 음악에 스며들다' 캠페인을 펼쳤다.(사진)

이날 행사는 버스킹 공연을 통해 음악과 선거의 공통점을 찾고, 가을날 소소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선거사진 전시, 정치후원금과 기부행위 제한 안내, 선거홍보관 전시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조선대병원,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달 30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호남권역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 및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31일 조선대병원에서 따르면 이날 훈련 및 회의에는 조선대병원 신종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을 비롯한 호남권역질병대응센터, 지자체 7개소 및 산하 감염병관리지원단, 실무협의체 참여병원 등이 참여했다. 호남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발생 상황에 대비한 공동 모의훈련을 통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과 관계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제점과 개선사항 논의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조선대병원 김진호 병원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완공이 내후년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서구, AI 역량 강화로 스마트 공무원 양성

광주 서구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직원 70여명과 함께 공직사회·AI 협업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기초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진)

서구는 직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공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추진했다.

교육은 △기초 AI 이해 △AI혁명과 STAR프레임워크 △AI 챗봇의 기본 사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형 AI를 활용한 정보검색 및 분석 △종합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서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변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최단 시간에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한국건강·농협광주본부, 쌀 소비 촉진 활성화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농협광주본부는 지난달 30일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의실에서 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문화 형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참여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쌀 재고 과잉과 쌀값 하락으로 신곡 가격도 지난해 보다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 전사적 쌀 소비 촉진 필요성이 요구되

어 양 기관은 전 임직원이 쌀 소비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 당 17만4592원으로 전년 수확기(10월) 21만7552원보다 4만2960원 떨어졌으며 정부의 10만5000톤 사전격리에도 쌀값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박종석 본부장은 "식습관 변화와 쌀밥의 부정적 이미지 부각으로 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의 효능 홍보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지역 쌀 소비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경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 성료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산경찰서 2층 어울홀에서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시민경찰학교는 시민 24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28-30일까지 3일 동안 경찰 업무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경찰의 조직과 업무 △자치 경찰의 이해 △112 상황실 및 경찰특공대 견학 △지역경찰체제 △각종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 답례품, 보이스피싱, 신종마약, 교통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경찰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철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세대공감 페스티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지난달 30일 오전 타운 야외잔디광장에서 1·2·3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장, 어르신, 지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타운이 매년 추진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확대해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인까지 온 세대가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대공감, 세대이음, 세대통합' 행사로 진행됐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김용덕 본부장은 "빛고을 세대공감 페스티벌이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이해와 공감으로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관광공사, 생태관광 활성화 전문가 회의 개최

광주시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광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제7회 광주관광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

31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오치욱 교수의 △생태관광의 개념과 동향분석, 광주연구원 김일권 연구위원의 △광주만의 생태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여영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광주관광공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평두메습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인 평촌반디마을 등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생태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특화진흥사업으로 지오스테이 상품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도심에 무등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광주만의 매력을 살려 하루 더 한 번 더 여행하고 싶은 체류형 생태관광 도시 광주, 광주만의 여행코스과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병하 기자